

형태와 공간 (形態와 空間)

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長 張慶浩

형태(形態)(Pattera)와 공간(空間)(Space)

일반적(一般的)인 용어(用語)로서 형태(形態)와 공간(空間)이란 너무나 광범위(廣範圍)하다. 기하학(幾何學)이나 생물학(生物學)을 다루는 분야(分野)로서의 형태(形態)와 과학(科學)이나 천문학(天文學)을 다루는 분야(分野)로서의 공간(空間)등 그 개념(概念)은 궁극적(窮極的)으로는 일치(一致)된 철학(哲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범위(範圍)에서는 다른 개념(概念)으로 출발해야 될 것이다.

S.E. 라스모센은 “조각(彫刻)은 유기적(有機的) 형태(形態)와 관련(關聯)이 있고 건축(建築)은 더 추상적(推象的) 형태(形態)와 관련(關聯)이 있다.”라고 말하여 벌써 조각(彫刻)과 건축(建築)의 형태(形態)를 분리(分離)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人間)이 이용(利用)하는 용기(容器)나 도구(道具)로서의 의미의 형태(形態)와 공간(空間)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릴로(Paul Jacques Grillo)가 자동차(自動車)와 항공기(航空機)의 형태(形態)를 평(評)한 것에 의하면 “항공기(航空機)는 기계(機械)의 순수성(純粹性)을 지켜나간데 비하여 자동차(自動車)는 기계(機械)로서의 자랑을 버리고 유행(流行)에 현혹(眩惑)된 Style 중심(中心)의 제품(製品)이 되어버렸다. 항공기(航空機)를 만들려면 보다 단순(單純)하게 하는 점에 노력(努力)을 기울여 절대 필요(必要)한 것 이외(以外)에는 모두 제외(除外)된다. 이것은 항공기(航空機)에 있어서 리펠트 하나라도 계량(計量)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공기(航空機)가 이처럼 단시일(短時日)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된 원인(原因)은 무엇인가 그 답(答)은 간단(簡單) 명료(明瞭)하다. 즉 기계(機械)의 충실(忠實)한 단순(單純)함에 철저(徹底)했기 때문이다. 유행(流行)에 현혹(眩惑)치 않고 능률(能率)만을 목적(目的)으로 한 노력(努力)은 가장 세련(洗練)된 단순한 형태(形態)를 낳았다. 반면 자동차(自動車)의 경우는 항공기(航空機)와는 달리 자동차(自動車)의 전통(傳統)에 있어 Style 제일주의(第一主義) 습관(習慣)을 꺾을 수 없었고 또 이 모순(矛盾)을 느끼지도 않았다.

즉 자동차(自動車)는 습관(習慣)에 얽매이고 유행(流行)에 지배(支配)되고 있다.

첫째 헤드라이트가 둘이라는 것은 확실히(確實) 마차(馬車)시대의 유물(遺物)이며, 사람의 눈이 둘이 있다는 사실(事實)에 영향(影響)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고 편광(偏光)을 시켜서 한개의 헤드라이트로 운전사의 눈을 현혹(眩惑)시키지 않고 노상(路上)의 필요(必要)한 것을 비출 수도 있다고 주장(主張)하여 마치 기능주의적(機能主義的)인 주장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았다.

1900년대초에 설리반(Sulliran)이나 그 제자인 라이트(F.L. Wright)는 모든 형태(形

態)의 미(美)가 기능(機能)을 그대로 표시(表示)하므로써 생겨난다고 주장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建築)의 원칙(原則)을 말하였다.

“건축(建築)은 실제로 필요(必要)치 않은 것이나 뜻이 없는 것들은 제거(除去)되어야 하며 반드시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全體)로서 그 자체 미(自體美)를 구성(構成)치 못할 어떠한 건축부분(建築部分)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어느 부분이라도 그 기능(機能)을 표시(表示)한다면 건물(建物)의 한 부분(部分)으로서의 미(美)를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비행기가 단순히 “빠르게 하늘을 난다”라는 목적(目的)을 가지고 발전(發展)해 왔기 때문에 그 형태(形態)의 미(美)를 발전시켰다는 말과 같이…… 또 위의 라이트의 말은 다음과 같은 말로도 상통(相通)됨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진실(眞實)한 문화(文化)를 가진 민족(民族)일수록 환경(環境)의 밀접(密接)한 접근(接近)을 나타냈다“라는 말이다. 오늘날 항공기(航空機)의 형태(形態)는 물속에서 물의 저항(抵抗)을 가장 적게 받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어류(魚類)의 형태(形態)를 모방(模倣)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류(魚類)가 오랜 세월과 물의 저항(抵抗)을 체험(體驗)하면서 부터 발달하게 된 자연섭리(自然攝理)의 자연침식(自然侵蝕) 형태(形態)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濟州道) 시골의 아무 장식(裝飾) 없는 초가집들은 풍우(風雨)에 대(對)한 저항(抵抗)의 체험적(體驗的)인 자연침식(自然侵蝕) 형태(形態)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한라산이 지구(地球)의 오랜 역사(歷史)를 가지고 지표(地表)까지 이 지방(地方)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適應)한 하나의 체험적(體驗的) 형태(形態)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사진으로 통해 보면 더욱 잘 나타나, 제주도의 특유한 초가집의 지붕선과 멀리 보이는 한라산의 능선(稜線)이 조화(調和)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웬일일까? 절대 우연이라고 간과(看過)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形態)에는 어떤 장식(裝飾)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건축(建築)은 보기 위한 외형적(外形的) 형태(形態)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體驗的)인 형태(形態)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건축공간(建築空間)에서도 같이 적용시킬 수 있겠다.

그릴로(P.J. Grillo)는 이렇게 말했다.

즉 “농가(農家)의 디자인은 어떤 속임수도 편견(偏見)도 없으며 특정한 Style이나 시대(時代)에 따른 양식(樣式)도 없고 그저 진실(眞實)함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농민(農民)의 예술(藝術)에는 영원성(永遠性)이 있고 계란의 노른자위나 보리타작처럼 본질적(本質的)인 것이며 언제나 새롭다.

그것은 경제성(經濟性)과 순수(純粹)한 필요성(必要性)에 따른 엄격(嚴格)한 이론(理論)의 결과(結果)이기 때문이다.“ 또 그는 ”형태(形態)를 창조(創造)하는 디자인은 시(詩)라고 말하였다. 즉 디자이너의 작품(作品)은 자연(自然)의 법칙(法則)과 인간(人間)의 본질(本質) 요구(要求)를 이해(理解)하는 능력(能力) 프라스 착상(着想)과 상상력(想像力)에 의해 가치(價値)가 판단된다“고 말하였다. 이 말들은 이미 위에서 논(論)한 말들과 연결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創造)라는 것이 기존(既存) 형태(形態)를 모방(模倣)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방(模倣)은 가장 안전(安全)한 형태(形態)가 될 것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오늘날 자동차(自

動車)는 그 본질적(本質的)인 요구(要求)를 벗어나 Style 위주로 필요없는 장식(裝飾)과 형태(形態)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필자(筆者)는 어린아이가 장방형(長方形)으로 잘라진 샌드위치形 케이크를 먹다가 그게 자동차(自動車)라고 마루바닥 위에 놓고 까불고 노는 것을 보고 놀랐다. 왜 그럴까? 아무리 위를 보아도 하나도 자동차처럼 생기지는 않았고 다만 평면(平面)이 장방형(長方形)이라는 것 뿐인데…… 이쪽 저쪽 하나의 완성(完成)된 형태(形態)로만 관찰(觀察)하다가 측면(側面)을 가만히 보니 수평(水平)으로 어떤 한계(限界)를 주어진 선(線)이 마치 자동차(自動車) 측면(側面)에 하부(下部) 보테와 창(窓)의 연속(連續)과 같은 한계(限界)를 연상(聯想)시킬 수 있고 또 수평(水平)으로 구획(區劃)된 선(線)은 수평운동(水平運動)을 의미하는 motif로서 충분(充分)하리라고 생각했다. 과연 우리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어떤 교통수단(交通手段)의 차량을 생각할 때 수평선(水平線)을 지니지 않은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땅 위에서 뻗뻗이 서서 수평운동(水平運動)(걷기 달리기)을 하는 인간(人間)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우수광스러운 形이라! 중세기에 서양에서 왈츠춤을 출 때 폭이 넓은 치마를 입고 바닥에 미끄러뜨리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멋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또 우리 나라의 춤을 길게 느린 한복치마를 입고 추는 것을 보고 멋이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형태(形態)이던 그 motif를 가진 선(線)과 면(面) 하나만으로도 어떤 설명적(說明的)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로마 건축이나 고딕 건축은 정신적(精神的)으로 위엄(威嚴)을 나타냈고 여기서 르네상스로 변천한 것은 수직적(垂直的)인 주요소(主要素)에서 수평적(水平的)인 주요소(主要素)로 바뀐 것이며 기념적(記念的) 공간에서 잘 짜인 동적(動的) 공간(空間)으로 바뀐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뾰족히 하늘을 치솟은 선은 신앙적(信仰的) 추상(推象)의 形을 나타냈고 인간(人間) Scale을 벗어난 로마의 판테온(Pantheon)의 Vault나 기둥등은 장엄(壯嚴)함을 나타내는 形이 된다.

건축(建築)의 형태(形態)는 반드시 그 실체(實體)와 실체(實體) 사이에 이루어지는 빈 공간(空間)이 생기게 되며 공간(空間)의 형성(形成)은 건축의 참된 의미(意味)를 준다. 위에서 라이트가 슬직한 기능(機能)의 표현(表現)은 미적(美的) 형태(形態)를 낳는다고 한 것은 건축(建築)에서 조화(調和)있는 참된 공간(空間)은 아름다운 형태(形態)를 낳게 된다 라고 말할수 있겠다.

로마의 산피에트로(San Pietro) 성당(聖堂)에 들어가면 초인적(超人的)인 공간(空間)에 놀라게 된다. 이것은 거의 인간(人間)의 Scale을 넘어선 공간(空間)들이다. 중앙부(中央部)의 Vault 높이가 120m나 되며 이 직경(直徑)이 50m로서 엄청난 위압감(威壓感)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벽에 조각된 릴리프(relief)나 천장과 Vault에 장식된 모자이크등 그 자체로서 짜임새 있는 조화(調和)를 이루며 성직자(聖職者)의 설교(說教)하는 목소리는 각 벽과 천정에 부딪혀 반사하는 음향(音響)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들을 때는 마치 천국(天國)의 궁전(宮殿)이라도 들어온 기분이 된다.

여기서 공간(空間)이나 형태(形態)가 지니는 요소를 빛과 색과 음향(音響) 그리고 Scale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음향(音響)은 공간(空間) 구성(構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重要) 요소(要素)임을 알게된다. 어떤 형태(形態)에 수직(垂直)으로 비추어 주는 빛은 그 형태(形態)를 무겁게(Messive) 느끼게하고 45°각으로 비추면 온화(溫和)한 느낌을 갖게 한다.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도 행각(行閣)과 근정문(勤政門) 그

리고 들로 간 바닥과 근정전(勤政殿)의 위엄(威嚴)을 주기 위한 이중(二重)의 높은 기단 건물내부(建物內部)는 윗층까지 통했으며 밖으로는 2층(層)으로 된 근정전의 중층(重層) 구조(構造)는 인간 Scale의 조화(調和)된 공간(空間)과 형태(形態)를 이루기 위함이다. 만일 단층(單層) 구조(構造)로서 그 평면(平面)에 그 높이를 이루었다면 인간(人間) Scale을 벗어난 전체로서의 조화(調和)되지 않은 형태(形態)와 공간(空間)을 낳게 됐을 것이다.

이상(以上) 논(論)한 바를 건축(建築)의 형태(形態)와 공간(空間)의 관계 또 이들에 요소등을 대략적으로 설명(說明)하였다. 즉 건축(建築)의 형태(形態)는 그 내부(內部)의 공간(空間)을 영위(營爲)하고 있고 공간(空間)은 형태(形態)속의 공허부(空虛部)로서의 어떤 형태(形態)를 창조(創造)한다.